

담양군, 전남 군 단위 중 '삶의 질' 1위

전국 79개 농어촌 군 지역 중 8위
보건·문화공동체 분야 높은 점수
효도행정·향촌복지 복지모델 호평



이병노(가운데) 담양군수 등 관계자들이 농어촌 군 중 삶의 질 지수 전남 1위를 축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전남 농어촌 군(郡)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만의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결과다.

담양군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보건복지 분야 4위, 문화공동체 분야 12위로 전국 79개 농어촌 군 지역 중 8위, 전남 17개 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했다.

담양군은 적극적인 효도 행정인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만의 복지 모델을 구축,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행복동행팀'과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방문 건강 상담과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 '우리마을 주치의', 고향사랑기금을 이용한 병원 동행, 퇴원 환자 돌봄 사업 등이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 조기 검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및 12세 이하 아동 정기 예방접종 강화 등 누구나 행복한 '담양형 향촌복지'를 통해 농촌지역 대표 복지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또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공간을 문화거점시설로 재조성해 예술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주고, 지역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관광문화축제로 선정된 담양의 대나무축제, 겨울 대표축제인 산타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특색있는 야간 콘텐츠로 온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무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무정면 은행나무축제, 가사문학관 참옥수수 음악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1읍면 1축제'를 개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문화로 하나 되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울여온 여러 노력이 좋은 성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싱싱한 전복 40%까지 깎아 드립니다

강진 마량항 수산물 할인이벤트
8월까지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

강진군이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량 놀토수산물시장에서 여름맞이 수산물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매일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는 삼복더위 극복을 위한 싱싱한 전복을 최대 40%까지 특별 할인하고, 매일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는 각종 건어물 특별 경매가 열려 매주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육상 물놀이시설도 운영하는데, 에어바운스와 워터 슬라이드, 탈의실, 샤워기, 그늘막 등의 시설을 갖춰 어린이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마량 전망대 카페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6월에는 버스킹, 컬러데이를 진행했으며, 7월에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고사리손으

로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를 갖는다. 마술쇼와 버블쇼 등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준비된다.

이 밖에 다양한 이벤트와 매주 열리는 토요일 약회 출연진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마량놀토TV'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토요일약회 공연은 생중계는 물론 다시 보기로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올해로 8회째인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 4월 27일 개장 이후 주말마다 북적이는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횡집 등 음식점과 수산물 코너, 건어물 판매장, 길거리 음식점을 비롯해 할매니 장터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량항은 아름다운 항구에서 수상레저 도시로의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마량항에서 강진 반값 관광의 혜택과 함께 시원한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31일까지 논벼 '왕우렁이' 집중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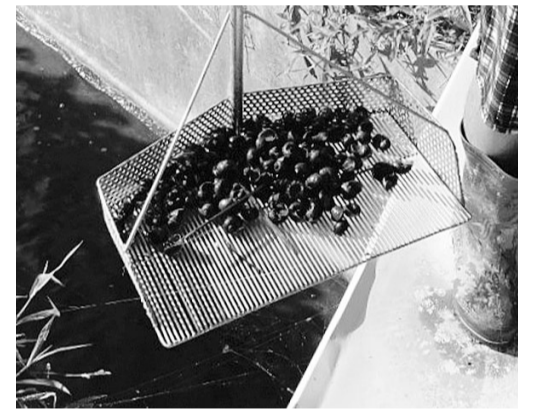
3416ha 논에 40t 공급

장성군이 논벼 제조 작업을 위해 풀어 놓았던 왕우렁이를 오는 31일까지 수거한다. <사진> 논에 왕우렁이를 넣으면 바닥에 자라난 잡초들을 먹어 제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화학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농가의 호응이 특히 높다.

장성군은 앞선 6월까지 총 3416ha 규모의 논에 왕우렁이 40t을 공급했다. 친환경벼 농가에는 사업비 전액, 일반벼 재배 농가는 90%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을 낮췄다.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생산비까지 절감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이롭지만, 제조 작업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왕우렁이를 회수해야 한다. 토종 우렁이에 비해 섭식력과 번식력이 우수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듬해에 어린 모를 갇아먹는 등 농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장성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농수로, 농경지 등에서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왕우



렁이 사용 농가는 벼 수확 후에도 동계작물 재배, 논 깊이갈이 등을 실시해 왕우렁이 번식을 막아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왕우렁이는 활용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제 수거 기간 적극 동참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원 부과

함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1만6425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함평군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분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총 22억4700만원으로 전

년 대비 0.8%가 증가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9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공시지가 산정 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

화순군이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2581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가격 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김규관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 되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나주 '왕건이 탐낸 쌀' 7월 한달 20% 할인

고객 감사 특별판매

나주평야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밥맛 좋은 '왕건이 탐낸 쌀'의 전남 10대 브랜드쌀 2년 연속 선정을 기념하는 특별판매 행사가 7월 한 달간 펼쳐진다. <사진>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이 품질·안전성·식미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선정한다.

나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나주몰' (https://www.najumall.kr)에서 오는 31일까지 '왕건이탐낸쌀'을 20%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 집까지 무료로 배송해주는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왕건이탐낸쌀'은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개발한 '청무쌀'로 나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3758t을 생산한 가운데 소비자 인기에 힘입어 53억원어치를 전국 각지에 판매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왕건이탐낸쌀은 나주시가 지난해 210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최신식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서 쌀의 이로운 영양 성분을 최대화하는 가공 방식으로 생산해 최고의 품질을 보증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맛과 우수성이 입증된 '왕건이 탐낸 쌀' 판매 시장을 보다 넓히기 위해 특판 행사를 기획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나주쌀 브랜드 알리기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